

##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1차 구술

1. 구술자: 김병준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박성수
4. 구술일자: 2012년 2월 17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공공경영연구원
6. 구술분량: 09분 14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첫 만남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활동

면담자 : 처음 만날 때 당시 한번 여쭙볼게요. 그때 그 시기를 보면 대통령님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든 게 구십삼(93)년 구(9)월로 되어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면은 이제 그 전에 처음으로 낙선을 하시고 그럴 때였죠. 그러면은 그 구(9)월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아무튼 계속 참여하셨던 거네요?

구술자 :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사나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오거나 이즈(organize)도 해주고 또 사회도 봐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연수 가는 프로그램들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참여를 했죠.

면담자 : 그때도 만든 초기인데도 꽤 프로그램이 좀 많았었네요.

구술자 : 암. 많았어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땐 정말 연구소가 좀, 정말 되는 것 같았어.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우리 저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막 삼백(300)명씩 이렇게 몰려들었으니까. 이 양반들이 와서 아주 진지하게 와서 듣고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지방의회가 막 생기고 난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번 지방의회도 곧 있고 또 곧 지방단체장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trend)로 갈꺼다, 라고 그렇게 되서 그런지 요즘 세미나에선 그렇게 안 모여요. 웬만한 세미나 하고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참여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당시에 지방자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는 데가 또 없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잘됐어요. 그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데도 지방은 나는 안 내려갔는데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꽤 사람들이 많

이 모이고. 좋았던 시절이고 또 그중의 일부를 모아가지고는 우리가 연수도 보냈거든. 미국. 미국연수를 주로 이제 내가 소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보냈지 아마. 그래서 연수도 보내고. 연수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은 우선 몇 번 보낸 게 내가 졸업한 대학을 보냈어.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 (University of Delaware). 델라웨어 대학에 연수를 보냈는데 그 연수 갔다 오고 한 사람들 중에 의원은 물론이지만 단체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심오(95)년 선거 때 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출신들 그 지금 우리 연수 시장(市長)반 출신들이 심지어 기초 지방정부 중예선 가장 큰 것들인데 고양시장도 나왔고 성남시장도 나왔고.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면담자 :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대통령님은?

구술자 : 거기서 그냥 만난 거죠. 실무연구소. 내가 강연 나가고 뭐 그러면서 만난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강연 날, 한번은 내가 이 세미나에 내가 발제자로, 발제자로 갔는가 토론자로 갔는가 갔어. 갔는데 그날 그 연구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처음 만났어. 처음 딱 만났는데 그때 내 기억에 아, 박세일씨가 발제자였다. 박세일 선생이 발제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حن가 토론을 했고. 어, 사회를 봤나보다.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수들이 와 있고 그래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토론회 끝나고 저녁을 먹게 됐다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때 같이 마주 앉아서 저녁 먹고 말하게 된 건 그게 처음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지방자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치인하면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뭐 그런 걸로 알았는데 지방자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야기를. 내 깜짝 놀랐거든. 지금도 지방자치 하자는 사람들이 보면 공동체 개념이 지방자치에서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앙집권체제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국가 안 됩니다’ 자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중앙집권체제가 들어있는 바람에 한국의, 한국사회 공동체를 다 붕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국민을 전부 피지배자, 피치자(被治者)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거든. 근데 ‘우리 국가가 지금, 앞으로 잘될려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 모세혈관들이 다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동체 조직을 다 파괴하고 국민을 그냥

피지배자로 만들면서 결국 모세혈관을 다 죽여 놔는데 이 모세혈관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공동체운동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아래로 내려서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것만이 한국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분권과 자율의 철학, 우리가 공유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래 그날 깜짝 놀랐거든. 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아 이 양반은 정말로 이걸 할려고 하는 구나.’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거든. 겸손하고 솔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요 공동체 운동하지만 사실은 또 딴 게 있습니다. 딴 목적이’ 그래. ‘이거 해가지고 지방의원들 다 지금 내가 당에 뭐 맡고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나한테 보험도 들러 오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어떤 심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론 너무나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도 나한테 보험 들러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 장사가 되는 장삼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 같이 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니까 정치조직화하고 월로써 정치를 하겠냐,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가 맞냐면은 자기하고 이념이 공동, 분권과 자율공동체라는 철학이 맞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로 돌을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양반 참 독특한 양반이구나.’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협조를 하다가 조세형 이사장<sup>1)</sup>이 떠나면서 내가 소장 이야기를 하길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두말 않고 오케이(OK) 했죠. 나로서는 내가 그 양반 철학이 분명한 걸 알고 물론 정치적인 그 야심과 그 다음에 또 의욕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공동체나 분권과 자율에 대한 아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철학이라 그래서 내가 얼른 하겠다고 했죠.

면담자 : 보면 구십오(95)년, 천구백구십오(1995)년 일(1)회 지방선거 전후로 그 시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였나 봐요. 실무연구소가.

구술자 : 그러니까 구십일(91)년. 구십일(91)년에 우리 지방의회가 처음 생기고<sup>2)</sup> 구십오(95)년에 단체장선거를 처음 하는데 그 시기에, 구십삼(93)년에 설립하고 그럴 때에 하여튼 잘됐어요. 연구원이 아주 활기가 넘쳤다고. 활기가 넘치고 행사도 많고 그랬었어요, 내 기억에. 시장반 그 다음에 의원반 우리가 운영했던 거 같고 그거 말고도 단기강좌 이렇게 하고 연수팀도 만들고 그랬죠.

면담자 : 그 시절에 대통령님은 좀 강좌를 하신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참여를 안

1) 10대, 13~15대 국회의원. 1993년 9월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설립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14대, 서울 성동을)으로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2) 1991년 6월 20일 치러진 시·도의회(광역)의원선거를 말함.

하셨나요?

구술자 : 강의하셨지. 그 무슨 세미나에 발제하고 이런 건 안하셨지만 한 번씩 강의를 하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치, 한국정치상황에 대해서 강의하기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자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과의 대화 또 노무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해야, 하셔야 됐죠.

### ■ 구술자 주요이력

1954. 경북 고령 출생

1972.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1976. 영남대학교 정치학 학사

1979.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석사

1984.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86. - 2004.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1995.01 - 2000.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1995.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1995.09 - 1998.08 미국 델라웨어대 도시행정대학원 외래연구교수

1996.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1998. 자치경영연구원 원장

1999.08 - 2002.04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1999.08 - 2000.07 일본 국제교류기금 펠로우(게이오대 교환교수)

2002.09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2003.04 - 2004.06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04.06 - 2006.05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2006.07 - 2006.08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2006.10 - 2008.0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2012년 현재)

2008.02 - 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1993년 9월 문을 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주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자치경영연구원 원장과 이사장 등을 맡으며 활동을 함께했다. 2002년 대선 때 정책자문단을 이끌었다.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김병준 교수는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꾸준히 정책 자문을 해준 유일한 대학교수였다(130쪽)”고 기록하고 있다.